

“기도하는 청년이 미래를 세운다”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헌신의 열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충만 성령충만 소망충만 ... 청년봉사선교회 겨울수련회



청년봉사선교회 겨울수련회가 지난 1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2박 3일간 전월성전에서 '이 세대를 분별하라' (눅 12:56)는 주제로 많은 청년들이 참가하여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열렸다.

청년들은 주제를 따라 다채롭게 꾸며진 여러 순서들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믿음을 견고히 하는 한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서 주신 거룩한 생명과 시간 그리고 맡기신 모든 것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바칠 것을 결단했다.

수련회 첫날 저녁 열린 특강에서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은혜로운 말씀을 청년들에게 전하고, 성령 충

만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며 아름답고 찬란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했다.

각 성전 청년봉사선교회 신입 임원들에 대한 임명식에 이어 김정훈 목사의 사회로 유한 정로의 기도, 안양성전 청년 GNTC찬양연주부의 특송이 있은 후, 조용목 목사는 누가복음 12장 56절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조용목 목사는 강단에서 현 시국과 관련하여 바른 상황인식과 판단의 기저 위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우리 청년들 모두 지혜롭고 건강하여 활발히 주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비전이 주 안에서 성취되도록 기도로

축복했다.

특강 후에는 다음 달에 팔레시아 선교지로 선교사활동을 떠날 예정인 선교팀 청년들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2박 3일간 계속된 이번 수련회에서 청년들은 주제에 따른 전체 특강과 전사회, 새벽예배와 말씀묵상, 성령충만기도회, 학교생활·직장생활·비전·이성교제·신앙생활의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된 분담식 선택특강, 조별·기수별·성전별 모임, 주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을 복돋우는 '뜻처럼 보아처럼' 등 다양한 순서를 통해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만끽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했다.

제3회 목회세미나 서울중앙지방회

‘준비하라 오직 복음으로!’ 주제로 1박 2일간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는 지난 1월 16일(월)부터 17일(화)까지 1박 2일간 속초한화콘도에서 ‘준비하라 오직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제3회 목회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교회의 바른 복음전파와 정체성 회복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전파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마음의 각오를 다졌다.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지방회장 김덕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박정자 목사의 대표기도, 교단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설교 순

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하 11:1-6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위해 준비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역자로서 더욱 성숙해지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전하고 “2017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반석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진 특강시간에는 ‘복고설교와 원어설교’ 박형우 목사, ‘성경전’ 김덕영 목사, ‘세상과 정직’ 김

규호 목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세미나 후 속초일대를 회원들과 함께 5대의 차량으로 나눠 타고 푸른 바다를 보며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지역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았다.

회원들은 인근 호텔에서 싱싱한 회를 나눠 먹으며 회원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으며 오후로 3회째를 맞는 서울중앙지방회 목회세미나에 참여한 회원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됨을 감사드리고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다음 세미나가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푸르초장은
마음의
시냇가

‘세 부류의 인생’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단 3:28~30)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의 의미, 내세의 운명을 결정짓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세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대비하여 보여주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는 짐승들에게서 찾는 것보다 더 나은 신의 의식과 죄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피조물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경배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섬기는 신이 무엇이든 그들은 개의치 않고 서슴없이 금 신상에게 절하였습니다. 종교는 모두 대동소이하므로 상호 존중하고 타 종교인들에게 개종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상숭배 종교의 보편적인 성격입니다.

둘째 부류는, 우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을 기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 본보기입니다. 그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주신 지혜로 자신이 꿈의 내용을 그대로 말하면서 명쾌하게 해몽하는 것을 듣고 감탄하여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의 신이고 왕들 중의 주이시며,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분

이심이 분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가 세운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으나 불에 탄 뱀새조차 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보고 충격을 받고서 크게 감동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라고 외치고 그들을 더욱 높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종교를 섬겼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과 유사하게 처신하는 지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화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하지만 성경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기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며 각 종교 나름대로의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셋째 부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표본입니다. 이런 신자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세상의 권세나 재물보다 중하게 여기며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우상숭배는 미워하지만 우상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감내하면서 전도합니다. 이러한 신자가 거듭난 신자입니다.

세상의 칭찬이나 육신적인 안위와 이득을 위하여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변하게 하는 자들을 두둔하고 그들의 활동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은 참된 신자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자신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과 믿게 된 사실로 인하여 세상 것으로는 가질 수 없는 기쁨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현 상황은 패망 직전의 베트남 상황”

북한선교회 주최 ‘현 시국 바로알기 세미나’ 열려



북한선교회 주최 ‘현 시국 바로알기 세미나’가 지난 1월 20일(금)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안양성전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성도들이 아가페 성전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선교회 이형준 회장의 사회로 선교회가 제작한 영상물 상영, 국민의례, 예배역 육군 장성인 선교회 김규식 장로의 기도, 박진환 연구교육팀장의 특강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진환 팀장은 우리나라의 현 시국 상황을 패망 직전의 베트남에 비유하고, 언론의 그릇된 보도 행태와 국가가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제시한 내용을 여러 가지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여 비판하였다.

이어서 주류 언론에 알릴 보도되지 않고 있고 특검이 유기고 있는 이번 사태의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용납하지 않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유일한 종교나 다름없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우리의 국가안보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경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미칠 파급을 이야기하며 성도들에게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주었다.

성도들은 현재의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안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식하고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기원하였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김영란법, 서민 읍죄는 법이 되지 않아야

한교연 논평 “현실에 맞는 개선안 절실히 필요”

부정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00일 만에 허용가액을 일부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법의 한도를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엄격히 규정하다 보니 농수축산 종사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00일이 되어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뜯어고치려다 아예 이 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사회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부정부패를 추방하지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공직사회도 스스로 자정 노력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공직자들의 부정 비리를 막고 청

탁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인 공직자들이 아닌 서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본다면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권익위와 정부부처가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전에 미처 예상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내놓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만 나사렛대 이사장, 나사렛대 방문

교류협력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등 논의

당사례(唐仕禮) 대만 나사렛성결회 총회 감독과 대유양(戴維揚) 대만 나사렛대 이사장, 황신중(黃信忠) 교무처장 등 일행 8명이 지난 1월 16일(월) 나사렛대를 방문했다.

당사례 총회감독은 세계 52개 나사렛대학의 일원인 한국 나사렛대학교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등 양 대학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이영식 이사장, 임승안 총장 등 나사렛대 주요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사례 감독은 대만 나사렛성결회와 대만나사렛신학교의 현황을 소개하고 교류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나사렛대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독립 기념관과 전주 한옥마을 등을 방문하며 한국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당사례 감독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양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과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임승안 총장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상호 교류를 통해 양 대학의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 나사렛성결회 일행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월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예성, 목사안수대상자 평생교육 실시

미래목회자로서의 목회자 재교육 증진 위해 개최

2017년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목사안수대상자 평생교육이 지난 1월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경기도 양평 시냇가푸른나무교회 수양관 ‘숲속작은나리’에서 진

행했다.

안수대상자들은 새벽예배를 시작으로 낮에는 강의를, 밤에는 안창규·허진행 목사가 강사로 나서는 심령부흥회에 참석함으로 예

성 교단의 미래 목회자로서의 양성 증진에 박차를 가했다.

올해 교육에서는 첫째 날, 목회자의 경건(신용백 목사), 목회윤리(이강춘 목사), 둘째 날에는 사중복음(김영택 목사), 전도학(안수 목사), 목회행정(송재원 목사), 목회예식교육(원태 목사), 목회학(이종복 목사),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설교의 실제 및 교육목회(이명화 목사)로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첫째 날 개강예배에서는 총회장 이동석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교단총무 이강춘 목사가 권면을 했고, 또 마지막 날 종강예배에서는 목사고시위원장 나세웅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안수 대상자 평생교육은 현장 부록 평생교육원 규정에 의해 당해년도 목사안수 대상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제27대 공군군종병과장 취임감사예배

1996년 공군 군종목사로 임관해 요직 거처

제27대 공군군종병과장 취임감사예배가 지난 1월 22일(주일) 오후 7시 충남 계룡시 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 200여 명의 육·해·공군기독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다.

이날 취임 1부 감사예배에는 공군본부교회 장윤진 목사(공군소령)의 사회로 육군군종목사단장 노명현 목사(육군대령)의 대표기도, 해군군종목사단장 황성준 목사(해군대령)의 성경봉독이 있는 후 육·해·공군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여성삼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이어서 2부 축하순서에서는 방갑주 목사의(공군소령)의 약력보고와 분화초교회 한웅 목사의 취임기도가 있는 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총무 김진호 목사의 축사, 한국군종목사단장 이정우 목사(육군대령)의 권



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영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제23대 공군군종병과장 문용만 목사(분당매일교회)와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학수 목사(12대 공군군종장)

가 제27대 공군군종병과장으로 취임하는 김성일 목사에게 스관과 지휘봉을 증정하였다.

또한 육·해·공군 MCF중앙단과 공군본부 홀리여성 중창단의 축하와 공군교회 사무장으로 방래영 장로의 광고, 서울신대학교 총장 노세영 목사의 축도로 취임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제27대 공군 군종병과장으로 취임하는 김성일 목사는 서울신대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서울신대 대학원, 미 싸우스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목회학박사)을 졸업했다.

김 목사는 1996년 공군 군종목사로 임관해(현종 18기) 7년째, 공군사관학교 공군중앙교회, 교육지원부, 작전사령부 등 공군의 주요 목적을 두루 역임 후 제27대 공군 군종병과장으로 취임하였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7차 정총

박재운 원장 “법원 연계, 연합기관과 교단 협력 강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원장박재운, 이하 화해중재원)이 지난 1월 20일(금)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법조계 부이사장에 이영복 변호사, 교계 부이사장에 박경진 장로, 감사에 박한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국교회 화해사역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

인사말을 전한 박재운 원장은 “오늘 땅에 쌓인 새하얀 눈처럼 올 한해 한국교회와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나아갔으면 한다”면서 화해중재원과 함께해온 이사와 법조계에 감사사를 전했다.

박재운 원장은 지난해 원장에 취임한 이후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법원연계형 조정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서울 중앙지방법원과도 연결됐던 것에 비해 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



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대표를 방문하고 예정 통합, 침례교, 감리교, 기성, 기장교단의 총회장과 만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박 원장은 “화해중재원이 설립된 지 9년, 사단법인 출범한 지 8년이 된 올해에도 새로 선출된 교단 총회장들을 만나며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교계의 화해를 도모한다

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승환 장로(운영위원)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는 이영복 장로(이사)가 기도하고 피영민 목사가 창 44:30-34 말씀을 본문으로 ‘희생 없는 화해는 없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소규모 대학을 위한 특별세미나 개최

‘루터대학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루터대학교는 지난 1월 19일(목) 송파구 신천동 한국루터회관에서 ‘소규모 대학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역량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기독교한국루터회가 주관하고 루터대학교가 주최하였으며, 전국대학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되었다.

제1차인 루터교 학원 김철환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한 세미나는 △한국대학의 구조개혁 ‘이슈와 도전’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소규모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필요성 (한양대 교수학습지원센터

오현숙 박사) △경기 서남권 대학교 협의체(UB)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대비 사례 발표(한세대 인재취업센터 맹주혁 팀장) △종교계 대학은 왜 평가에 취약한가? (성제민 루터대학교 기획실장) 등의 순서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김철환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마르틴 루터의 개혁정신에 입각하여 소규모대학의 정체된 발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소통과 공유를 통해 상호 발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권득철 루터대학교 총장대행은 “앞으로도 종교대학과 소규모대학

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이러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본 세미나에서 루터대학교 정제민 기획실장은 종교계 대학이 평가에 취약한 이유로 크게 다섯 가지에 걸쳐 화두를 던졌다.

△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토대로 교육이 진행되는 신학과 중심의 학사운영이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에 있어 사회 수요를 즉시 반영하여야 하는 일반학과의 교육과정 개선에 둔감한 점 △대부분의 종교계 대학은 설립이념에만 집착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미래 수요와 사회 요구 그리고 학생 요구 등을 반영한 혁신 역량을 미설정하여 융·복합적 소양을 갖추게 할 교양교육을 소홀히 한 점 △교과과정에 부족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비교과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특히, 교수학습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등)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외부위원들의 위촉이나 산업체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진인장박이 높은 점 △교단의 교리만 중시하는 풍토로 인하여 외부환경에 대처할 교원·직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구세군,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캠페인 시작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선교의 중요성·도전정신 강조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은 새해를 맞아 국제구세군(대장 안드레 폭스)이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The Whole World Mobilising)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제구세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의 이름으로 차별 없이 인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구세군의 차별없는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세군은 128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세상을 뒤

집어 놓은 것을 생각하면 120만 명의 구세군 숫자는 엄청난 것”이라고 구세군의 잠재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오도록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도전을 제시했다.

이처럼 구세군 선교의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 활동의 핵심이다. 구세군은 이 캠페인을 시작으로 세계 128개국에서 인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세계바울부흥선교협, 신년하례예배

국가안보와 경제회복 위해 특별기도

세계바울부흥선교협의회(대표회장 심재선 목사)는 지난 1월 20일(금) 오전 11시 30분 올림피아크렐 드마리스홀에서 신년하례 및 오찬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전용만 목사(운영회장) 사회로 최남복 목사의 기도, 노병훈 목사의 성경봉독, 심재선 목사의 잠 30:7-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계속해 기타예 목사의 헌금기도, 황준익 목사의 헌금송, 조지현 목사의 성사낭송, 김중석 목사의 광고, 문원순 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심재선

목사 사회로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실행위원은 이성민 목사의 개회기도에 이어 강봉규 목사의 ‘교회부흥과 세계선교’, 김중석 목사

의 ‘국가안보와 경제회복을 위해 특별기도를 인도한 후 안전도의 시간을 갖고 부흥선교협의회 전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굳센 믿음과 사랑의 열정을, 아름답고 거룩한 꿈을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열려

은혜와진리교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의 겨울수련회가 지난 1월 5일(목)부터 21일(토)까지 3차로 나누어 은혜와진리동산 전원성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열렸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각각의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계절의 특성에 맞게 특강과 기도회 중심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참가한 학생들로 하여금 먼저 구속신앙에 투철하고, 이 시대에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깊이 깨닫고 이를 적극 실천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도록 이끌어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말씀의 은혜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은혜와진리동산에 모인 학생들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면서 세상에서 그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더라도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거룩한 꿈을 가슴에 품고 주를 향한 사랑의 열정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으며, 믿음의 위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공동체 경건훈련을 통해 믿음의 담력과 전도의 능력을 키우는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섬김의 정신을 함양하였다.



교회학교 동계수련회...신앙의 발자취를 쫓아!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1월 12일(목)~13일(금), '신앙의 발자취를 쫓아!'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연합 동계수련회를 가졌다.

안동, 김천, 구미 등지에서 모인 교회학교 학생들은 양화진 선교사묘역과 한국기독교 순교자기념관 등 국내 기독교 성지를 탐방하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일사각오 신앙으로 희생하셨던 선교사들과 신앙 선배들의 흔적을 돌아보며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앙을 지키셨던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인해 누리는 자유임을 마음 깊이 깨달았다.

또한 한국병원선교회 곤지암수양관에서 가진 제백성회(말씀 강태진 목사)와 아침예배(말씀 신재영 목사)를 통해서 세상의 시류나 풍조에 몰리지 않고 율법에 휩쓸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년 한 차례 지방회 주관으로 교회학교

연합수련회를 갖는 대구경북지방회 교회학교 학생들은 일정 도중에 KBS방송국 견학과 맞닿아 있는 교회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연합수련회 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1박 2일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다.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1월 12일(목)~13일(금), '신앙의 발자취를 쫓아!'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연합 동계수련회를 가졌다.

바른 인격과 생활로 성도들의 본이 되자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차흥식 목사)는 지난 1월 24일(화) 순복음은혜교회(담임 김영권 목사)에서 2017년 신년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영권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인복 목사의 기도, 증경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설교와 지방회장 차흥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진 목사는 살전 5:23-24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바른 신앙은 목자들이 먼저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 성도들이 목자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목자들은 바른 인격이 없이는 안 되며 올바른 생활이 없이는 안된다. 충서지방회 목자들은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인격과



바른 생활로 성도들의 본이 되고 은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하자"고 전했다. 이어서 나라의 혼란한 일들이 속히 정리

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지방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순복음은혜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2017년 신년월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목회 다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는 지난 1월 16일(월) 오전 11시, 한희순복음교회(담임 이동수 목사)에서 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신현찬 목사(기쁨충만 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윤광진 목사(늘푸른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이동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롬 1:1-6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산 사람들'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으니 우리들도 사명 다 할 때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더욱 겸손과 순종과 섬김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문근 목사(이복순복음교회)가 드



리신 예물을 위해서 축복기도하고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의 진행으로 재무 신병설 목사, 회계 민병훈 목사의 보고와 서기 및 총무보고에 이어 기타 안건을 처리한 다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

과 충북지방회 신하 모든 교회의 부흥을 위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한 다음 최동순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한희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소영진 목사)는 지난해 12월 27일(화) 순복음포도원교회(담임 오일선 목사)에서 2016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송년기도모임과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부회장 안종식 목사(광주제일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어 증경회장 원봉재 목사(세종중앙순복음교회)의 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황 목사는 벰전 5: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는 첫째, 목회자인 예수그리스도의 양육자를 감당하기 위해 성도들의 꼴을 먹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둘째로 양육자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성도들에게 주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목회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증경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증경회장 조원익 목사(순복음추계교회), 목회자와 가정을 위해 증경회장 오승욱 목사(천안서북교회)의 특별기도가 있었으며, 윤옥 목사의 헌금기도와 증경회장 류승창 목사(순복음어울림교회)의 축도로

2부 월례회에서 각부 회무보고가 있는 후, 순복음포도원교회(담임 오일선 목사)에서 준비한 풍성한 식사를 하며 안부와 담소를 나누었다. 그리고 불령경기를 통해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다지며 유익한 송년 기도회 모임을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마 25:1-13



차흥식 목사

· 아산순복음교회 담임
· 충서지방회 회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살펴보니,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 명은 미련하고 나머지 다섯 명은 슬기롭다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신부로서 미련한 처녀에 속하는지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에 속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미련한 모습으로 인생 살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혜로운 모

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속 열 처녀는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부였습니다. 차이점은 '기름'이었죠. 신부는 믿는 자 곧 성도입니다. 등불은 믿음의 신앙(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등불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름은 성령입니다. 등불을 가진 신부들은 모두 믿는 자이며, 주님 앞에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문제는 기름 곧 성령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요 3:5 말씀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등장하면서 믿는 자의 첫 번째 의식 중에 하나인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와 약속한 성령을 보내 줄 테니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아버지와 약속했던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요 14:18 말씀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영을 보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초대교회를 이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분도 곧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거들나지 않고는 천국을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요 3:5) 엠 6:18 말씀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생각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가련 갈수록 순결해지고 순수해져야 합니다. 각종 기병 그릇이 있는데 아무리 금 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이라도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을 2:28 말씀과 행 2:17-18 말씀을 보니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신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역사, 소망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지꾸지꾸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힘이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은 항상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것을 이길 힘이 없으면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멸망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되신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이 깜깜한 밤에 도적같이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그 신앙을 기다리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의 영 믿음의 영을 키워놓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리 깊은 새벽이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의 거룩한 역사가 지꾸 내게서 지꾸서 가니까, 성령의 그림자가 지꾸 저 가니까 돈이 보이고, 이성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자리가 보이고 지꾸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악한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꾸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 그만큼 내게서 성령님이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대 11:45).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거룩한 자리, 거룩한 지경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여러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엠 5:9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곧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착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행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만 높아집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지꾸만 작아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우린 작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순수하고 바르고, 착하며, 순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동 정

한성연 신년하례회



제7회 한국성결교회 연합회(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신년하례회가 지난 1월 24일(화)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한성연은 이날 비전선언문 발표를 통해 온전히 성경으로 돌아갈 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성 회복, 이슬람 세력에 대한 견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등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경기북기독교총연, 이정근 총회장



사단법인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월 22일(주일) 총회장 이정근 목사 취임 감사예배 및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동연합회는 다양한 교단 및 교회를 존중하고, 하나의 교회와 연합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연합정신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임을 고백했다.

교강협 부울경 목회자 세미나



교회경신협의회(의사장 김경원 목사, 대표회장 이강현 목사)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대표회장 정연철 목사, 상임총무 박성규 목사)는 오는 2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부전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 주제는 '종교개혁 500주년 목회경신을 꿈꾸다'이다.

이지선 박사, 한동대 교수 임용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의 역경을 딛고 인간 승리, 신앙 승리의 감동 스토리를 써 온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박사가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새 출발을 한다. 이 박사는 지난 1월 13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주님 주신 선물 많이 받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잘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정부의 할랄식품 문제는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현재 탄핵소추인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아신 차게 추진하던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할랄 산업'이다. 정부가 2년 전 이를 발표하고, 연이어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책 입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즉,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고,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면서도, 그래도 정부가 하는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은 자체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측근들에 의한 소위 국정농단 문제가 불거지면서, '할랄 식품' 문제가 왜 갑자기 국정의 핵심과제처럼 떠올랐는지가 밝혀져,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할랄 산업 관심 제고는, 2015년 1월 12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나타난다. 당시 발표에 의하면, 농

업 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동남아를 넘어서 할랄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3월 초에 중동 4개국을 순방하면서, 아랍에미리트(UAE)와 '할랄식품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한식을 접목해 세계를 선도하는 식문화를 만들자고 강조하였다(이 때 대통령은 국민들의 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투씨리' -히잡의 일종-를 썼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그해 3월에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할랄 식자재 전문 인력 양성 지원' '할랄 인증 정보 지원' '할랄에 부합하는 한식 레시피 개발' 등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또 전북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할랄 식품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과 국내 할랄 인증기관인 이슬람중앙회(KMP)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한-아랍에미리트(UAE) 간에 할랄 식품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두바이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의 부산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할랄 산업 육성은 입안(立案)과 실행과정에서 상세한 검토 없이, 즉흥적인 발상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그야말로 대단한 신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여겼던 '할랄 산업'은 부실 그 자체로,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박 모 의원이 할랄인증식품 수출실적 자료를 요구하자, '수출실적을 집계하는 통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또 할랄 인증 도축가공시설 건립이 현행 '동물보호법'과 충돌하여 지연되고 있

다고 한다.

그런 데다 할랄 식품은 신선육을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구제역 청정국으로는 55일, AI 청정국 지위 유지는 지난 2014년 이후 60여 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무슬림 국가들에 육류를 수출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정부지원이 무원칙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2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수산식품 할랄 인증에 지원한 돈은 5억 7천 만 원이며, 건수는 51건이다. 이는 한 건당 1천만 원의 국민 혈세를 지원한 것인데, 굳이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수산물이라는 것이다.

'감'과 같은 수산물은 이슬람의 꾸란에 보이도 이미 '할랄 식품'이다. 꾸란에 보면, "그러나 바다의 사냥과 그 음식은 하락되

노라'(5:96)라고 되어 있다.

이렇듯 '할랄 식품'은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서 밀어붙인다는 인상과 우려를 받았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다지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할랄 산업' 정책의 발상은 엉뚱하게도 최근에 밝혀진, 소위 국정농단으로 마에 오른 비전문가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니 할 말을 있게 한다.

정부는 '할랄 산업'에 대하여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할랄 산업'의 허구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정책과 판단은 국민들을 혼란케 하며, 국가 재정의 낭비를 가져온다. 또한 구분별한 이슬람 끝어들이기들 통해, 안보에까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바란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Wedding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기독교문화예술
진단

이상열 목사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이사, 전 서울예술신학교 학장, 전 바기오예술신학대학교 총장

기독교 예술, 그 지표에 대하여 ②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 1:28)는 말씀과 같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사원에서부터 우리들 가슴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또 그러한 실현을 언제나 인류는 성취해 보려 했다고 본다. 만약 그러한 실현이 우리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인류는 여전히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인류가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우리의 문화가 그만큼 건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고의 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건전한 바탕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겠다. 문화란 건전한 바탕 위에서 형성된다. 인간의 타락은 인류를 멸망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예술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도 예술이란 언제

나 건전한 종교적 바탕 위에서 삶의 궁극적 지표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있다. 인류가 잘못 받을 디고 있을 때 예술은 그대로 주저앉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세계 제2차 대전은 인류를 피멸의 국면으로 몰아넣었지만, 예술인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비전을 제시했고, 그러한 비전은 인류로부터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 예술 하면 여전히 이틀마치 교회의 전유물에 속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예술은 교회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 예술이 교회를 떠나 존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니 그러한 기독교 예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술과 교회의 관계는 교회의 변영이 기독교 예술의 전도를 함께 하여 주는 함수의 관계가 있다고 본다. 교회가 없는 기독교 예술이란 사실상 존

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기독교 예술은 전적으로 교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교회에서의 금지령은 절대적이었고, 그래서 기독교 예술은 언제나 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계속해 왔으며, 그에 준해서 그들의 작품을 축소화하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교회는 그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어떠한 장에도 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회는 점차적으로 그들의 제한적 영역을 넓혀 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기독교 예술이 실제로는 벽에 부딪힌 것은 이러한 교회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소재나 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비기독교적 그러한 예술과의 조화를 이룰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기독교 예술은 더 이상의 전진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사진은 지난해말엠버서더호텔에서 열렸던 제3회 기독교문화예술대상 시상식 장면.

K-Classic 세계화에 앞장서는
임청화의 ‘Art Songs’

정덕기의 예술가곡 ‘무궁화 아리랑’ 등 18곡 담아

정덕기의 예술가곡집 ‘무궁화 아리랑’이 라틴 소프라노 임청화(백석대 예술학부 교수)의 목소리로 담겨 음반으로 발매됐다.

이 음반에는 타이틀곡인 정덕기 작곡의 예술가곡 ‘무궁화 아리랑’ 등 열여덟 곡이 임청화의 목소리를 통해 장엄하게 또는 서정적이면서 애절하게 불려지고 있다. 소프라노 임청화는 숙명여대를 졸업한 후 네덜란드 왕립음악원 최고학부 전문연구자 과정을 한국인 최초로 수석졸업했다.

임청화는 아시아 평화의 날 한국대표 독창자(네덜란드 헤이그), 네덜란드 여왕초청 공연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공연을 한 것을 비롯 최근에는 K-Classic세계화에 홍보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7개의 음반을 출시했으며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성악부문 대상수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대상,



2011년 ‘제6회 한국기독교문화예술대상대회’에서 음악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 K-Classic 세계화 추진 운영위원회 예술총감독, 대한민국 감사위원 홍보대사로 섬기고 있다.

직장선교대학 훈련생 모집

직장선교대학이 훈련생을 모집한다.

직장선교대학은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대표회장 서병조) 산하 한국직장선교대학 사역본부가 주관하는 전도, 육성, 제자화 훈련과정이다.

1988년부터 2000여 명이 훈련을 받았고 각 직장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신앙훈련 및 시간 관리 등의 경건훈련과 전도·육성이론 시범 등의 사역기술훈련을 시킨다. 개인 양육과 소그룹 모임 시범 등의 지도력도 개발한다.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13주 과정이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3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서울 삼각지역 서울메트로 예매실,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2층, 경기도 이천 한국전력 이천지사 및 이천세무서, 서울 종교교회 5층에서 각각 열린다 (010-3864-5771).

10년의 간절한 소망,
새해 첫 신장기증 ‘꿈 이루다’

41세 초등교사 이주희씨 생면부지 타인위해 신장 기증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첫 신장기증인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41세 여성 이주희 씨가 21년간 투병생활을 이어온 생면부지 신부전 환우에게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증한 것이다. 이 씨의 수술은 서울삼성병원에서 진행되며 이 씨는 본부를 통해 생면부지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960 번째 주인공이 되었다.

이주희씨가 10년간 꿈꾸던 생명나눔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고향을 찾아 ‘민족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에 오히려 서울로 올라와 수술대에 오른 주인공이다. 바로 전교생이 140명인 강원도 고성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주희 씨(41세·강원) 올해로 19년째 교직 생활을 해온 그녀는 교내에서도 아이들을 사람으로 돌보는 선생님이로 유명하다. 지난 2007년, 이 씨는 본부를 통해 신장을 기증한 한 교사의 사연을 접하고 신장기증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 후 2016년, 출석하던 교회에서 드려진 장기기증 서약예배를 통해 신장기증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녀는 “원래 제 꿈이 사회복지사였어요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늘 주위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언제든지 꼭 생명나눔을 실천하겠노라 다짐한 거죠”라며 당시 서약소감을 전해주었다.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배우 공현주, 사랑의 도시락 봉사활동 펼쳐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의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공현주가 동료 배우들과 함께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1월 18일, 배우 공현주는 일일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김민수, 강태환, 맹보학, 김혜리, 이종수, 이상인, 박여진 등 총 7명의 동료 배우들과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배우 공현주와 동료 배우들은 오전 9시부터 전날 수거해 온 도시락 세척을 시작으로 각종 반찬을 직접 만들고 담는 등 활동을 오후 12시까지 진행했다.



이날 직접 만든 130개의 도시락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결식아동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었다.

배우 공현주는 “2015년 연말부터 지인들과 함께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을 방문해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 준비를 돕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배우 공현주는 월드비전의 여의교육지원사업인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 홍보대사로서 대중에게 캠페인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에는 조훈과 임진, 위생용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녀들을 격려하기 위해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해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알리기도 했다.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거나 식사를 거르는 아동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적어도 하루 한 끼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접 조리한 도시락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1개 지역의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에서 1식 3찬 이상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승용차 3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딤후 2:3

17.01.29(일) _ 02.01(수)

Target _ 19세 이상 청년 10명

Location _ 엔학고레 센터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194-1

Contact _ 010-5145-3816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서교국(국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화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고영권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양인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최병진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상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일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7년도 목사고시가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목사고시

① 일시 : 2017. 2. 20(월)~21(화) 오전10시

② 장소 :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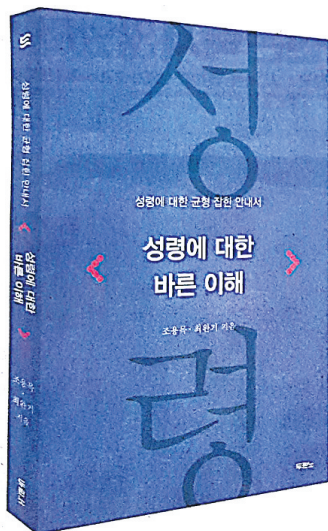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조남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최형택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 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번져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 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내역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는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월드뷰티핸즈 3차 이사회, 사업 확대키로

서울역 해돋는마을 찾아 설날 사랑의 뷰티서비스 행사 개최

아름다움을 전염시키며 사랑을 전하는 국제뷰티구호개발NGO (사)월드뷰티핸즈(이사장 정현일, 회장 최에스터) 제3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1월25일(수) (사)해돋는마을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6년 사업결과 및 결산 보고,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의결하고 월드뷰티핸즈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별히 2017년 사업계획으로 마포구 대흥동, 신수동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어렵고 소외된 저소득층 이웃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뷰티서비스와 뷰티 기술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여러 전문 협력기관과 함께 장수 사진촬영 등 다양한 사랑 나눔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뷰티구호개발NGO로서 지난해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어 금년 7월에 인도네시아 국제대학교와 함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K-뷰티 교육 및 뷰티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뷰티서비스와 뷰티기술교육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새터민 가족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뷰티서비스를 연중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월드뷰티핸즈는 이사회를 마친 후 서울역 해돋는마을에서 '서울역 노숙자, 쪽방촌 어르신 설날 사랑의 뷰티서비스'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2년 전부터 매월 격주로 섬겨온 월드뷰티핸즈 소속 K-뷰티교수 및 뷰티 전문가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뷰티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작은 선물과 함께 사랑을 나눴다.

월드뷰티핸즈는 이날 행사 이후에도 오는 2월 18일(토) 강서구 뚝방에서 '강서구청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뷰티서비스'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섬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뷰티구호와 개발을 진행하는 (사)월드뷰티핸즈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 전문교수와 기관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사단법인 단체로, 1365지원봉사 행사부 인증기관으로 뷰티지원 봉사자 신청을 받아 뷰티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CTS,〈동성애 STOP〉특강 개최

동성애의 파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지난 1월 22일(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CTS컨벤션홀에서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을 초청하여 '동성애의 파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했다.

신촌 세브란스 가정의학과 호스피스 클리닉 담당 전문의였던 염 원장은 강연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어 수동연세요양병원을 개원하였다"고 전하며 "개원한 이후 행편이 어려운 안환자들을 하루 2만 원의 입원비만 받고 진료를 하던 중 2009년, 치료비, 입원비를 낼 행편이 안 되는 에이즈 환자의 요청을 시작으로 60명 이상 감쪽 없는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강을 한 염 원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동성애는 절대 선전적이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 학습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염 원장은 "동성애자들은 자기들끼리 연락하는 수단이 있다"면서 "특히 동성애자들은 어플을 통해서 서로 연락하고 만나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한다. 우리나라에는 60만 명의 남성 동성애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60만 명이 축제를 하는 강력한 이익집단은 동성애자들밖에 없다"면서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가 아니다. 그들은 법적인 보호까지 받고 있다"고 비



판했다. 특히 "동성애는 성 소수자라는 인식을 언론이 주입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러나 성 소수자 성향은 20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인간의 몸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성애"라고 지적한 염 원장은 "남자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동성애자들과 만나고 있다"면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밝혔다.

염 원장은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시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TS라디오JOY 홈커밍데이 개최

개국 4주년 맞아, 후원자 제작자 협찬사 등 모여 행사

개국 4주년을 맞이한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 앱(APP) 라디오방송 CTS라디오JOY(이하 '라디오JOY')는 지난 1월 24일(화)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CTS컨벤션홀에서 〈Prayer Club 신년하례식〉과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Prayer Club〉은 라디오JOY의 대표 중보기도 프로그램 "기도합니다"의 출연진이자 후원회 조직이다. 이날 신년하례식은 △Prayer Club 회원들에게 감사패 전달 △라디오JOY 및 기도합니다 사역보고 △청취자에 대한 분석 보고 △청취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이날 라디오JOY 홈커밍데이 행사는 후원자 방송출연자 제작자 협찬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사역자 동방환주와 찬양사역자 리셋에 감사패 전달 △바이올리니스트 여근하·찬양사역자 소마·찬양사역자 박찬미의 특별 공연 △오찬 및 교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2013년 개국한 대한민국 대표 앱 라디오 방송 〈CTS라디오JOY〉는 24시간 찬양과 말씀을 청취할 수 있는 중립채널과 CCM, Worship, 성가, 연주곡, 말씀 등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100여 명의 크리스천 사역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크리스천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제작자를 상시 모집한다. (문의: 02-6333-2580).



‘2017년 스포츠선교대상 시상식’ 기독교선수 격려

대상에 박민재 목사, 특별선교상에 장혜진 양궁선수 등

(사)세계스포츠선교회(대표회장 임석순 목사)는 지난 1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한국중앙교회 본당에서 '2017 스포츠선교대상 시상식'을 갖고 지난 한 해 스포츠를 통해 국위를 선양한 기독교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상에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박민재 목사가, 특별선교상은 리우올림픽 양궁 2관왕 장혜진 선수·유도 66kg 은메달 안바울 선수·유도 48kg급 은메달 정보경 선수·복싱국가대표 합성명 선수가 각각 받았다.

시상식 예배는 김홍은 목사(영화교회)의 기도, 임석순 목사의 기도, 김강인 목사(공동회장)의 성경봉독, 이광훈 목사(세계스포츠선교회 이사장)의 딤후 4: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전도인의 일을 하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계속된 예배는 윤덕신 목사(태능선수촌교회)의 헌금기도에 이어 이사에 대한 임명식, 스포츠선교대상 수상자들의 활동상황을 담은 동영상



상 상영, 황덕광 목사(성락장로교회)·정종훈 목사(영도교회)의 격려사 및 축사에 이어 대상 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진 후 정재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패키지여행 / 허니문 / 크루즈 / 골프 / 어학연수

적립식여행 시스템으로 목돈의 부담없이!!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매월 적립식 납입으로 부담없이
납입기간 내 완납 시 언제든지 출발가능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가능
고객의향에 따른 맞춤 설계시스템

☆품의 여행단 모집☆
010-2339-7601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3 가든타워 1320호
(반등 446-13)

씨지투어 CG TOUR (주)씨지투어 www.cgtour.co.kr TEL : 02)903-4744 / FAX : 02)903-4745 / HP : 010-2339-7601

통일연합종교포럼, 신년하례예배

탈북동포자립단체에 약품전달식도 가져



(사)통일연합종교포럼(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이 최근 안산에서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기도 안산시 탈북동포자립단체(주)JPS대표-남명혜)와 같이 신년하례예배를 드리면서 동 단체에 약품을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가졌다.

두 단체의 관계자들과 회원 등 약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드린 이날 예배는 사무총장 박광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포럼법인감사인 나득환 장로의 성경봉독, 포럼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김 목사는 단 6:1-6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 현재 충성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탈북민들의 어려운 현실과 고충을 알지만 그레도 현재를 감사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사도라면 통일의 날이 더욱 앞당지게 될 것”을 말하였다. 이날 탈북동포자립단체의 회원들의 뜨거운 신앙의 고백과 표현이 두 번의 성가와 두 번의 찬양으로 드러지면서 시종일관 저들의 신앙의 열정과 통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통일연합종교포럼대표회장 원종문 목사는 새해 인사말을 전하면서 문화적 차이와 환경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잘 극복해 나가길 바라며 한국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것임을 말하였고, 탈북동포자립단체 남명혜 대표는 음8:2-6 말씀을 소개하며 창대케 될 것이란 새해 희망과 포부를 말하였고, 통일연합종교포럼법인감사 김희선 목사는 격려사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내의 모든 상황이 힘든 때이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어 양 기관대표인 통일연합종교포럼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와 탈북동포자립단체 남명혜 대표가 나와 약품전달식을 가지고 모든 순서를 마치면서 악수레로 새해 덕담과 인사를 나누었다.

통일연합종교포럼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며, 북측 동포들에게 필요한 필수품, 의약품 및 각종 지원활동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2005년도에 창립하여 2007년도에 통일부 소속 사단법인으로 인가된 단체이다. 북한 동포들의 의료지원 및 병원복구지원 사업과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사업 및 그들의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예선연, 2017년도 제1회 정총

교회연합을 위한 협력과 지원사업 등 실시

(사)대한예수교총회선교연합회(이사장 경원수 목사, 총재 김인식 목사, 대표회장 강재원 목사)이하 예선연)가 지난 1월 17일 오전11시 성은교회 본당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갖고 총재에 김인식 목사, 상임총재에 김광본 목사, 대표회장엔 강재원 목사를 선출하고 교회연합을 통한 협력과 지원사업 선교를 통한 국내·외 구제사업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사장 경원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모두 힘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마지막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연합회가 되자”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이사장 경원수 목사의 사회로 이사 박천진 목사의 기도, 이사성백은 목사의 성경봉독, 이사진들의 특별전양, 구국기도원 총재 강재원 목사의 왕상 18:30-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연합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예배는 계속해서 국제합동총회의장 장성호 목사·합동예중 총경총회장 고흥기 목사의 격려사, 연합총회

장 김광본 목사·장로교 총회장 김현세 목사의 축사, 이사장 경원수 목사의 광고 후 개혁신통 총회장 김인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회무처리에는 이사장 경원수 목사의 사회로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제택, 회계와 감사보고 임원선출에 이어 임원취임을 가졌다. 회무처리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에 이어 기타 인건은 임원회에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총재김인식 목사△상임총재 김광본 목사△고문 장성호·이장범·고흥기·조덕수·신재용·장기영·김현세 목사△대표회장 강재원 목사△공동회장 임성용·조용진 목사, 각 총회 총회장 △부회장 박경상 목사△지분위원 박천진·오준영·윤범석·임성수 목사△지도위원이영현·홍성철 목사△총무 성백은·김익배 목사△서기 임재영 장로△회계 백종인 목사△감사 권오석 목사△사무총장 안진석 목사△이사장 경원수 목사△이사 박경상·홍성철·성백은·오준영 목사,임재영 장로 이영현·윤범석·박천진·이정범·백종인·안진석·조덕수 목사△감사권오석 목사



충남도 도민인권조례 제정안 문제 있다

충남도민들과 국민의 의견으로 막아야 한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 조사와 신청, 신청한 것에 대한 처리, 인권침해와 차별에 따른 불이익과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례안은 차별의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차별 사유보다도 ‘동성애’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각종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으로도 각 분야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다만 최근 우리 사회에 화두로 급격히 떠오르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규정은 따로 없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한 경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다른 목적을 의심케 한다.

첫째는, 공직자들과 공직에 준하는 근무자들이 동성

애에 대한 바른 판단이나 비판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동성애 문제는 여러 가지 찬반의 여지가 있고 이것은 결코 정당한 ‘성 정체성’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염두에 두고,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것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둘째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조례’를 통하여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을 두고, 그들이 인권을 빌미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소지가 크다. 이 조례안 제2조 제4호에 보면, ‘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분명한 선을 그고 이에 대하여 충남도민들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으로 막아야 한다.

시사 칼럼

전용만 목사 // 성신교회 원로

아름다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새해가 밝아 왔는데 아직 미명인 것 같고 태풍은 지나갔는데 아직 바람이 잔잔하지 않다. 필요 없는 휴지 조각이나 각종 쓰레기들은 버리고 가야 하겠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과 애국가 태극기는 버리지 말자.

부모 배신하면 절되는 것이 없고, 친구 우정 배신하면 잘살 수 없고(욥기 17:5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해 받게 한지의 지손들 눈이 멀게 되리라) 나라 조국을 배신하면 동물만도 못한 쓰레기들이나까 염려하지 말자.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나라가 무엇을 해주지 바라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한 말이 생각난다. 참 멋진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영적인 전쟁 성령과 악령이 대결하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각국의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200:1의 경쟁 속에서 싸워가고 있다.

어려운 여건 중에도 잘 싸워주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렇게 일으켜 주신 너무 수고와 애쓰신 경제의 전사들 고마운 분들이다. 군사적으로는 대북 대중대일 대러 관계 속에서 총부리를 겨누며 숨겨진 전쟁 중인데 어느 나라 하나도 만만한 상대가 없다.

교육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심각하다. 국가의 간성을 키워가는 육사에서 생도들한테 625를 누가 침공했

냐고 질문을 하니 34%가 우리가 이북을 쳐들어갔다고 대답을 했었다. “아렇게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느냐?”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전남 광주교육청에서 발간된 교재 중 세계적으로 계획된 전원도시가 어디냐고 거기가 바로 평양이라고 전쟁 하지 말고 군축을 하면 그 돈 가지고 교육비도 줄일 수 있고 북지에 사용하면 잘 살 수 있을텐데 지구 전쟁 준비에만 돈을 쓰는 나쁜 나라’라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라니 어떻게 하든 좋겠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없다. 평화를 사랑하거나 전쟁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광화문 시위 현장에 “사드 배치 반대, 이석기 석방, 희망은 북한뿐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단두대에 매달겠다고 그 형상을 만들어 몽둥이 죽장을 들고서 있는 모습. 참 소름끼치는 일이고 625 때 인민군들에게 반마다 끌려가서 장백산 줄기줄기 김일성 찬가를 배웠다. 인민 치안대 완장 찬사들이 무서웠던 일이 생각이 난다.

예수님에게도 가뭄 유다가 있었다. 요셉 씨 같이 세균을 퍼뜨리는 자, 소문만 무성한 자, 천정에 절하는 자, 민중 혁명을 외치는 문제 있는 자, 전진도 철수도

못하는 자, 이 나무 저 나무 올라타는 원숭이 같은 자, 이북이나 지원 하는 자 추하고 예쁘지도 않은 자, 천태 만상이다.

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형우 선생의 말씀 중에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 위기에 빠진 자기 측 사령관을 버리고 재빨리 적군에 가담하여 적군들과 같이 이군을 공격하는 반역 졸병 같은 자들 그런 저질 스파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다.

이제는 조국을 버리고 자기가 자라온 땅을 버리고, 죽마고우처럼 그렇게 지내던 동료도 버리고, 자기가 자라온 고향도 버리고 참 버릴 것도 많다.

쫓돌도 태극기도 분별 못하는 자들 쫓돌 시위자들 “100만명 모였다고 왜 그리 편파 거짓 보도 하느냐”고 어느 시민이 항의 전화를 하니 주최 측에서 알려주는 대로 방송을 한다는 것이다. 주최 측이 천만명 모였다고 천만명 모였다고 방송을 할 사람들..

지금은 북한의 선전과 침투된 간첩과 그 특수부대의 출현을 눈여겨보아야 하며 크게 대비해야 한다.

아제 우리나라 심장부 광화문 광장에도 태극기가 휘날릴 것을 기도하며 태극기도 못 달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도 한 손에 태극기, 한손에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전진을 거듭하자.

밀알복지재단-(주)에스원, 설 명절 맞아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설 명절을 맞아 밀알복지재단과(주)에스원이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했다. (주)에스원 전국 110개 사업장 임직원들이 230개 복지시설에 과일 및 부식세트를 전달하는 ‘설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주)에스원 사회공헌 담당자는 “이번 ‘설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전국에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줄 수 있어 기쁜 마

음”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주)에스원 사회봉사단 임직원들이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활동으로 밀알복지재단과 (주)에스원은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내 나눔활동이 필요한 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❶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219(어현동 470-16)

❷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❸ 택배판매 가능

YONSEI NANUM CLINIC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피부 · 성형 · 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 색소클리닉
2. 여드름클리닉
3. 흉터클리닉
4. 비만클리닉
5. 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 · 수 · 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한 목회자의 눈에 비친 ‘태극기 애국집회’의 나라사랑

토요일 오후의 행복한 외출, 경기지방회 김바울 목사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보통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사실 친정어머니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이미 진실이 왜곡된 텔레비전 보도 때문에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셨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맑은 공기로 어머니의 생각을 맑게 해드릴 겸, 우리는 시청 앞 광장으로 갔습니다.

오후 5시쯤인데 이미 많은 사람들로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으나 우리가 애국시민들과 하나 된 그 기분만큼은 무아라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였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군중들과 함께 각종 구호들(탄핵무효! 등등)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태극기의 거룩한 애국의 물결은 답답했던 우리의 가슴에 강한 충격의 감동으로 와 닿기에 충분했으며 이어 애국 노래들을 부를 땐 우리의 눈에는 어느새 가슴에서부터 솟구쳐 넘쳐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친정어머니도 감동을 하셨는지 혼자 말씀처럼 한바디 하십니다.

나이다 “참일 운동을 하는것하고 똑같은 기분이에요.” 그러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리고 도로행진을 하는 중에는 어느 중년 남자의 실명까지 잘 들으셨고 고개를 끄덕이시며 한 말씀 더 하십니다. “텔레비전에 서 진실보도를 안 해주니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쯤 말씀하셨다는 것은 애국 집회 현장의 시민들의 거룩한 태극기 물결의 나라사랑을 보시고 우리가 누구의 편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거짓 없는 진실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것을 보셨기에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고 마음에 변화가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랑 함께 오길 참 좋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하늘에서 뿌리된 눈발은 제법 굵아졌고 머리로 아예로 소복이 떨어 갑니다. 여동생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함께 앞서 행진하는 동안 저는 어머니 등 뒤를 바짝 따라붙어 어머니의 머리와 어깨에 소복소복 쌓여가는 눈을 계속 털어 내 드리며 오랜만에 큰 행복감을 맛보았습니다.

발이 많이 시리실 텐데 82세 되신 어머니는 잘도 걸어갑시다. 어머니도 표현하지 않지만 좋으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행진까지 무사히 다 마치고서야 우리는 시청 지하철로 다시 돌아와 밤늦게 각자의 집으로 갑니다. 여동생은 감남으로, 어머니는 원당으로, 저와 장요셉 박사는 동두천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주님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살렘!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김바울목사 가족.



※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법률전문가들의 법률해석을 김바울 목사가 옮겨온 것이다.

대통령탄핵은 무효이다

이 국민의 시작은 중북조파세력의 국기 전복과 정권악화에 혈안이 된 대통령병자의 기만술책, 전정권의 부패기득권층의 세력결집화, 김영삼법으로 후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된 후안무치한 국회의원과 조작보도의 주범 언론봉숭인들의 난동이요, 음해공작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이슈 때마다 이권을 탐하여 썩은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물어뜯는 하이에나 근성의 강성노조들, 인성교육을 상실하고 지리나 학생들에게 감점과 분별력을 파벌시키는 전교조, 색감할 때감찰 등의 수석어가 따르는 기회주의 감찰들, 실종된 정의만큼이나 좌경화된 법조계의 법리해석, 현학적인 지식인들의 역사관, 시대의 사람인 성직자들의 계도 없는 침묵 등등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병폐임을 자숙하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헌법 제27조, 헌법 제84조에 의거 각하 또는 기각이 되어야 한다.

야 한다.

간추린 근거들

1. 헌법 제84조에 의거 내란과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탄핵대상 아님)
2. 범죄 시인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탄핵은 헌법 제27조에 위배된다.
3. 현재는 국회가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에 관하여 판단만 하는 기관이지 사법부가 아니므로 국가원수 탄핵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4.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법령 유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84조에 의거 탄핵대상이 아니며 일반 형사 사건은 퇴임 후 적절한 재판을 받는다.
5.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면 법률에서 확정된 사실이 없는 언론자료를 탄핵대상의 증거가 될 수 없다.
6. 최순실 사건 등의 공소장을 광의적 해석으로 보면 대통령은 공무원 아닌 전 국민 누구에게나 지시와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적으로 수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뇌물 등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가원수에게 부여된 최고권한이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2017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4420-8650
상임총무 김전수 목사
HP : 010-3698-57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도시 지역 미지림교회(성도수 20명 이하) 및 농·어촌, 산간벽지, 낙도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 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대표교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총회장
조용복 목사 (은혜의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의사랑의교회)	진동용 목사 (새소망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전주은혜의진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의평강교회)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지도교문	지도교문	증경회장	증경회장	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김인찬 목사 (창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예일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의천양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기원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서복교회)	황희연 목사 (은혜의평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김임복 목사 (순복음무등교회)	백영자 목사 (북동순복음교회)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평중앙교회)	김전수 목사 (제주한아름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추진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교회)	
실무총무	서기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박홍열 목사 (오성시영교회)	성기찬 목사 (동울산순복음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원교회)	양은혜 목사 (창조교회)	김종연 목사 (은혜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하은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한선교회)	이화숙 목사 (진주순복음우리교회)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임영철 목사 (순복음금곡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원교회)	김남수 목사 (밝은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서범석 목사 (가나안영성교회)	정예스더 목사 (예수행기교회)	옥보애 전도사 (소망농교회)	

예장합동 증경총회장단, 한교총(가칭) 가입은 불법

박무용 총회장, 안명환 증경총회장 목사면직 불법 ... 교단 내 현안 입장 밝혀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증경총회장단이 합동측의 한국교회총연합회(가칭) 가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6일(월) 증경총회장단은 엠베서더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개혁주의 칼빈신앙을 가진 우리가 먼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즈음해 WCC 가입교단과 함께하는 연합운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증경총회장단 5인 대표위원회 위원장 서기행 목사는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 숭배, 외경 용인, 교권과 그릇된 신학사상을 감추고 있다. 그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종교 간 화해를 모색하는 기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별 때일수록 종교개혁의 본질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칭)한국교회총연합회 가입은 절차와 총회의 헌법을 무시한 처사이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웃교단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만이 교단의 허락한 범위임을 확인시켰다.

이날 증경총회장단은 종신대학교 안명환 이사장 출교와 기독교인 폐간, 증경총회장 3인 예우정지, 종신대학교 이사회 파행 등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독교신문"과 관련하여 "총회 유지재단을 비롯한 기독교인 이사회 등 총회결의 없이 폐간되었음"을 지적하고, "당시 기독교신문 발행인인 박무용 목사가 기독교신문사 폐업신고를 임의로 작성, 박무용이라는 이름과 직인으로 폐간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독교신문이 입은 피해와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교단은 기독교신문 폐간 관계자를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 대표위원회는 전국 목사, 장로 총대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증경총회장 5년 예우정지는 총회 질서와 총회회의 진행과정을 파괴한 선포라면서, 제101회 총회개회를 선언하면, 직전총회장은 유안건(노회 조직보고고과 임원선거만 하고, 그 외의 모든 안건처리)는 제101회 신임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가진 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박무용 목사는 증경총회장 3인을 제101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증경총회장의 예우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증경총회장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며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미지도 재판 없이 권징을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호소문은 제100회 박무용 총회장이 안명환 증경총회장 목사면직 역시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는 "당시 총회 현장에서 즉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는데, 제101회 총회 장소에 안명환 목사는 자리에 없었으며, 총회현장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행동이나, 사건도 없었다"면서 "목사면직은 노회에서만 할 수 있다. 권징조례 6장 42조, 43조에 의거 목사면직처분은

이단을 주정하거나, 회화를 부리한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 제101회 총회의 사무처리 및 권징은 제101회 총회장이 김선규 목사가 맡아 할 일이지, 박무용 목사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박무용 목사의 보복성과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죄요, 무지의 소치라고 밝혔다.

종신대학교 안명환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은 "일부 정치권의 조직적 방해로 재단이사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어서, 2015년 예결산과 교수 임면 건도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파행의 원인이 마치 종신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름"을 밝혔다. 그리고 "조만간 긴급처리권을 가진 이사회가 모일 예정"이라면서 "재단이사회가 성공하면 관선이사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요즘 일각에선 예장 합동 총회에 리더십 부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무주공산 상태라는 목소리가 높다. 금번 증경총회장단의 입장 발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교계의 반응이며, 진작 나섰어야 한다는 음성도 들린다.

“강원도교육청의 기독교 신앙인 교사 징계는 과도하다”

종교탄압은 안 되며, 이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인 처사이다

지난 1월 26일 한국교육자선교회(이사장 김형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강원도교육감(교육감 민병희)이 기독교 신앙인 교사들(이하 기독교 교사)에 대한 감시권을 남용하여, 인권을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성토했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1월 23일 기독교 교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2명의 교사에게는 '감봉'을, 1명의 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 이유는 '종교중립 위반 및 종교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교사들은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그것은 방과 후에 교사 개인이 기도한 것이며, 신앙을 가진 전파하는 학생에게 성경책을 선물한 것, 그리고 신앙을 가진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신앙서적을 선물한 것이다. 그리고 방과 후에 아이들이 아이기를 해 달라고

해서 성경책 일화를 교훈으로 들려준 것이며, 도덕 시간에 '눈노 관련' 수업을 하면서, 교사의 경험 영상을 보여주므로, 학생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준 것이 '종교교육 중립의무 및 종교교육'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하면 일부 언론들은 강원도 교육청의 발표대로, '교사가 아이들에게 부적을 만들어 주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는 기독교인이 어린 학생들에게 부적(符籙)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을 빌미로 강원도 교육청이 기독교 교사들에게 가혹한 징계를 내린 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신앙'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며,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보여, 강원도 교육청의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이런 징계조치는 형평성에도 어긋

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2015년에 시국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가 부양한 교사 66명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학교장 주'의 '틀 준 일'이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이런 낮은 단계의 징계를 내린 것은, 이런 기독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너무나도 대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원도 교육청이 내린 징계에 대하여, 당사자인 교사들도 해명자료를 냈는데, 강원도 교육청이 징계의 사유로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한다.

이들테면, 초등학교 1학년생이 귀신이 나타난다고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고, 생리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기에, 교사가 자신의 경험을 들어, '혜수 보혈'을 외쳐보라고 한 것을, 부적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교회언론화-

사설

화합의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

올해는 대통령 선거의 해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게 되자 조기 대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는 이른바 "대권집중"이라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자화자찬을 앞세우면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서 이 땅의 성도들과 국민 모두는 새로운 국가원수의 자질에 관해 한결같은 소망을 가슴마다 품고 있다. "이 나라를 더 이상 어지럽히지 않고, 국민을 하나로 화합시키며, 나라 위상을 중진국의 문턱을 넘어 기어코 선진국에 입각하도록 이끌어 주고, 또한 생지육 같은 인권탄압 아래 비참한 삶에 갇혀 있는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통일의 그 날을 능히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국가원수(元首)를 주옵소서" 하는 소망이다.

"난세에 영웅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한 영도자의 제1 덕목은 우선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이끌 수 있는 겸허한 성품이 제일 첫 번째다 생각된다. 그에 더하여 창조주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금성철화적일 것이다.

제승박덕(侍勝薄德) 재주는 많으나 덕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는 예부터 지도자의 덕목으로 가장 배척되는 성품으로 지목되어 온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잠16:18) 국가적 지도자의 성품은 최우선 겸허해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요구된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 부호출신이라 그런지 겸양(謙抑)이 없어 보여 걱정이라는 평들이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교만과 패망에 관한 말씀이 있다. 아비멜렉은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오른 자다. 기드온의 막내아들 요담만이 도망을 쳐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그때 요담이 백성들에게 "나무들의 풍유"를 말한다. 나무들이 갈갈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게 각기 찾아가서 "너를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주겠다"고 하니 모두다 한결같이 겸손하게 사양하였다. 그러나 유독 가시나무는 가까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다고 하고는 그에 한 술더하여 "너를 왕으로 세우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무들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스스로 왕위에 오른다. 이 풍자담을 통해 요담은 형 아비멜렉의 부적격성을 백성들에게 고발하였다.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고지존(自高至尊)의 성품을 드러낸 자가 바로 아비멜렉이다. 그는 결국 하나

님의 버림을 받아 일개 야蠻자가 된진 돌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비밀계시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다. 교만하고 탐욕이 앞서는 사람은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번영케 하기보다는 어지럽히고 퇴보하게 만든다는 교훈이다. 요즘 어떤 여론지지도 최상위의 대통령 지망자 한 사람은 "나만이 검증 받은 흠 없는 후보라 어차피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호언하며 자만심을 드러내고 다닌다.

대통령 선거 사상 일찍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오만과 자기 자랑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의 진일과 군사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를 일대 청소하겠다"고도 말한다. 국가원수가 되어야 할 포부가 나라의 번영과 화합보다 먼저 "청산"이고 사람 "청소"라 하니 국민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주까지 한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인사를 올리겠다고도 말한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갈거리 찢어진 사회 갈등상을 해소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본래의 국민 모습을 회복시켜 줄 그런 성품과 화합력을 가진 지도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런 품성의 바탕 위에서 나라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유덕하고 지혜로운 국가적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국민적 화합과 나라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걱정하기보다 먼저,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해코지하면서까지 권력만 잡아보자는 그런 사람은 국민들이 내칠 것이다.

북한 강정은은 오늘날 전 인류의 적이다. 유엔이 인권탄압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기로 결의한 지이기도 하다. 외교관례를 깨고서라도 혈맹을 제쳐두고 그런 자에게 먼저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나라 걱정보다 자기의 이념을 앞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라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밤낮없이 부름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애국충정으로 간절히 간구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이 백성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국민을 화합시키며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번영으로 이끌어 갈 그러한 지도자를 국가원수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 ~ 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 교대한 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하나님의 계시(아포칼립시스)

주님께서 70인을 세워 전도대로 파송했을 때, 전도대들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이 항복하고 병이 고쳐지고, 마귀가 떠났습니다'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반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니, 마귀가 떠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기쁨보다는 사역의 결과로서의 일들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본질적 기쁨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이 구원입니다. 주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포칼립시스(계시)가 열려,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버지가 누구며, 아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어 주심이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거듭난 제자들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았음에 복 받은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들이 누구인가를 계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기노스코).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율법의 관원이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였지만 감춰져있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지만 의미는 모른 채 행위만 강조하였습니다. 마치 나무꾼이 숲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이,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하면 그 안에서 헤매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고 헤매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들은 셋째,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야 하며,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비로소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자들입니다.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개강 : 2017년 03월 02일 목요일)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군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지립 교회의 목회자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 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agpgs.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4 학기 (2년)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2016년 12월 5일(월) ~ 2017년 2월 10일(금)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 ~ 2017년 2월 17일(금)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i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 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나 발견되면 합격을 하였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2017년 2월 17일(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 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리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2016년 12월 5일(월) ~ 2017년 2월 10일(금)
- ②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 ~ 2017년 2월 17일(금)
- ③ 면접시험 : 2017년 2월 20일(월) 오후 1시
- ④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2017년 2월 17일(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